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입니다. 개뿔쑥에서 말라리아 치료 성분을 발견했다는 지난주 특강 내용 기억나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인류를 살리는 식물에 관한 얘기였죠. 이런 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 화면을 보여 주며) 나무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 화면을 보여 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식물 중 40%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 우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품고 있는 씨앗, 즉 종자의 보존은 중요합니다. 오늘 발표는 그 종자 보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자를 보존하기 위한 시설로 시드볼트가 있습니다. 종자와 금고를 합친 말인데, 용어가 어려우니 종자 금고라고 할게요. 종자 금고는 기후 변화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인한 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 지어진 종자 영구 보관 시설입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 볼게요. 종자 금고는 전 세계에 몇 군데 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아, 정답자가 없네요. 놀라지 마세요.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며) 단 두 나라, 노르웨이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데 일조하고자 지은 우리나라 종자 금고는 경북 봉화군에 있습니다. (㉢ 화면을 보여 주며) 화면 속 건물 아래쪽에 보이는 공간이 저장고가 있는 지하의 모습인데,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에 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종자도 기탁받아 4천 중 넘게 보관하고 있는데, 저장고 내부는 종자의 발아를 억제해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관된 종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반출하지 않는데 식물의 멸종이나 자생지 파괴 등을 대비해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자를 지키는 일은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살아 있는 유산인 씨앗.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우리나라의 종자 금고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궁금한 점을 질문 받고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로 개념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④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이어질 발표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보여 준 화면이다. 발표자의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	〈멸종이 우려되는 식물〉	〈우리나라 종자 보관 시설〉
[화면 1]	[화면 2]	[화면 3]

- ① [화면 1]은 매년 나무 종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② [화면 1]은 멸종 위기의 나무 중 중에서 종자가 보존되고 있는 종의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③ [화면 2]는 전체 멸종 우려 종에서 식물 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④ [화면 3]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자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⑤ [화면 3]은 지하 종자 저장고의 위치가 종자의 발아 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37. 다음은 청자와 발표자가 나눈 질의응답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청자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A]

발표자: 그 내용은 발표에 없었네요. 추가로 그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 ① 종자 금고는 현재 두 나라에 있다고 하셨는데, 두 나라의 종자 금고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② 기탁받은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종자를 기탁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③ 현재 보관 중인 종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종자 금고에는 우리나라 종자만 보관하나요?
- ④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종자를 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 ⑤ 종자 금고에 보관된 종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반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반출했던 경우가 있나요?

[38~42]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가 우려된다

일요일 오후에 방문해 본 우리 학교 근처의 한 ‘팬 상품’ 판매점. 옷이나 소품 등 연예인과 관련하여 판매되는 상품인 팬 상품을 사려는 청소년들로 북적였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팬 상품의 인기가 뜨겁다. 국내 팬 상품 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200억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우선 충동적으로 팬 상품을 소비하는 비율이 높다. ㉠ 2020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67%가 충동적으로 팬 상품을 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일회성 소비는 잘못된 소비 습관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과시적 소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학자 유△△ 교수는 “청소년의 과시적인 팬 상품 소비는 남과 차별화하고 싶은 욕구의 그릇된 발현이다.”라고 그 원인을 밝혔다. 과시적인 팬 상품 소비는 물질적인 요소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팬 상품을 소비하는 일 역시 우려된다. 1학년 정○○은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소외감을 느낄까 봐 산 적도 많아요.”라며 인터뷰 과정에서 속마음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팬 상품 소비에 대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태도가 요구된다. 정신과 전문의 박□□의 저서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문화』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들은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소비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팬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학생 1: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를 다룬 초고를 검토할 차례지?

학생 2: 응, 초고는 내가 작성했어. 편집부장은 조금 늦는데. 우리부터 의견 나누고 있자.

학생 1: 그래. 그런데 초고에 부정적인 관점의 내용만 제시했던데?

학생 2: 친구들을 보면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학생들이 팬 상품 소비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지녔으면 해서 그렇게 썼어.

학생 1: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잖아. 즐거움이나 행복과 같은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끼리 더욱 친밀해지기도 하고. 그러니 두 관점의 내용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할 것 같아. [A]

학생 2: 나도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해. 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더 커 보여. 팬 상품 소비의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려면 우려되는 면을 부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B]

학생 3: (들어오며) 회의에 늦어서 정말 미안해. 회의 시작 시간을 착각했어.

학생 1: 팬찮아. 이제 막 시작했어.

학생 2: 너도 두 관점을 모두 제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C]

학생 3: (어리둥절해하며) 두 관점이라니 무슨 말이야?

학생 1: 방금까지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에 대해 긍정하는 관점과 우려하는 관점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룰지, 우려하는 관점의 내용만 다룰지 논의 중이었어. [D]

학생 3: 아, 그랬구나. 판매 수익 기부처럼 팬 상품 소비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잖아.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팬찮다면 두 관점의 내용을 모두 글에 담아 줄 수 있어? [E]

학생 2: 듣고 보니 내가 너무 우려되는 점만 강조하려 한 것 같아. 팬 상품 소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볼게.

학생 1: 좋아. 그러면 제목도 그에 맞게 수정 부탁해.

학생 2: 알겠어.

학생 1: 다음으로 초고의 세부 내용을 검토해 보자.

학생 3: 2문단은 충동적 소비를 다루고 있잖아. 그러니 마지막 문단의 일회성 소비라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

학생 2: 다시 보니 그렇네. 문단의 중심 내용과 어울리는 표현으로 교체할게.

학생 1: 같은 문단에서 설문 조사 자료를 인용할 때 빠뜨린 게 있어. [A]

학생 2: 설문 조사 자료의 내용을 믿기 어려운 문제가 있겠구나. 확인해서 수정할게.

학생 1: 혹시 더 검토할 부분이 있을까?

학생 3: 마지막 문단에 글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으니 삭제가 필요해 보여.

학생 1: 아, 그리고 팬 상품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강조하려면 비교 기준이 되는 해의 팬 상품 시장의 규모를 밝혀야 할 것 같아.

학생 2: 둘 다 좋은 의견이야. 반영해서 수정할게.

학생 1: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을 모두 잘 반영해서 다음 회의 때 확인하자.

학생 2, 3: 그래. 좋아.

38.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화 표지로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드러낸다.
- ② 특정 이론을 활용하여 중심 화제의 개념을 제시한다.
- ③ 다른 나라의 사례와 대조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④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인다.
- ⑤ 중심 화제에 대한 인식을 시기별로 제시하여 인식의 변화 과정을 드러낸다.

39. 다음은 (가)를 작성하기 위해 쓴 메모이다. ㉠~㉥가 (가)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팬 상품의 인기 ㉠
- 팬 상품 소비에서 우려되는 점
 - 충동적 소비 ㉡
 - 과시적 소비 ㉢
 -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소비 ㉣
- 팬 상품 소비의 바람직한 태도 ㉤

- ① ㉠: 현장을 방문하여 목격한 팬 상품 판매점의 분위기를 제시하였다.
- ② ㉡: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충동적인 팬 상품 소비 태도가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였다.
- ③ ㉢: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팬 상품을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행위의 심리적 원인을 제시하였다.
- ④ ㉣: 학생을 인터뷰하여 팬 상품을 소비하는 이유가 소외감과 관련 있음을 제시하였다.
- ⑤ ㉤: 관련 저서를 근거로 들어 청소년들은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소비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40.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A]~[E]의 대화 참여자의 발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자료 1]
- 대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기, ㉢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 상대방의 의견과 일치되는 점을 언급한 후 자신의 의견 제시하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자료 2]
- 대화 참여자들이 ㉠ 대화 상황과 관련한 맥락을 공유하는 일은 중요하다. 맥락이 공유되지 않아 ㉡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① [A]: ‘학생 2’의 발화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름을 제시하기 전에 공통되는 의견부터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 ② [B]: ‘학생 1’의 발화는 상대방이 회의에 늦은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 ③ [C]: ‘학생 3’의 발화는 상대방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는 대신 되묻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 ④ [D]: ‘학생 1’의 발화는 회의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 ⑤ [E]: ‘학생 3’의 발화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명령형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41. ㉦과 (나)의 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문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지 않았어.
- ② 설문 조사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았어.
- ③ 설문 조사의 응답 결과를 순위대로 밝히지 않았어.
- ④ 설문 조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밝히지 않았어.
- ⑤ 설문 조사를 한 주체와 응답 대상을 밝히지 않았어.

42. (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교체한다. ①
처음	○ 2014년도 국내 팬 상품 시장 규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한다. ②
중간	○ ‘일회성 소비’를 ‘과시적 소비’로 교체한다. ③ ○ 팬 상품 소비가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④
끝	○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교체한다. ⑤

[43~45] (가)는 글쓰기를 위한 학생의 생각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생각]

학생회에서 체육 대회 이름 공모하기로 했지. 공모전과 관련해서 이름 짓기에 대한 글을 학교 누리집에 올리려고 해. 그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 공모전을 하는 이유를 언급하며 글을 시작하자. 그리고 ㉡ 이름 짓기의 효과를 제시해야지. ㉢ 이름 짓기의 방법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나) [학생의 초고]

올해 체육 대회는 운동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래서 학생회에서는 올해부터 바뀌는 체육 대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새 이름을 짓는 공모전을 열기로 했다. 이름이 무슨 영향을 미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름 짓기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이름 짓기를 잘하면, 사람들에게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 맛과 영양에 문제가 없지만 흠집이 있어 상품성이 떨어진 사과에 ‘등급 외 사과’ 대신 ‘보조개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 이미지를 개선한 사례가 있다. 귀여운 보조개가 연상되는 이름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것이다.

또한 이름 짓기를 잘하면, 사람들의 참여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임산부가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는 좌석의 이름은 ‘임산부 배려석’이다. 만약에 ‘임산부 양보석’

이라고 하면 자신이 앓을 자리를 남에게 내어 준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자발적으로 좌석을 양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름 짓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대상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이름을 지나치게 생소하지 않게 지어야 한다. 이름이 지나치게 생소해서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람들이 기분 좋게 수용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43. (가)의 ㉠~㉣을 (나)에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체육 대회라는 이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제시한다.
- ② ㉠: 올해부터 바뀌는 체육 대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 ③ ㉡: 이름 짓기를 통해 이미지를 개선한 ‘보조개 사과’의 사례를 제시한다.
- ④ ㉢: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이름이 주는 효과를 ‘임산부 양보석’과 비교하여 제시한다.
- ⑤ ㉣: 이름 짓기를 할 때 사람들이 기분 좋게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을 언급한다.

44.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회장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추가할 마지막 문단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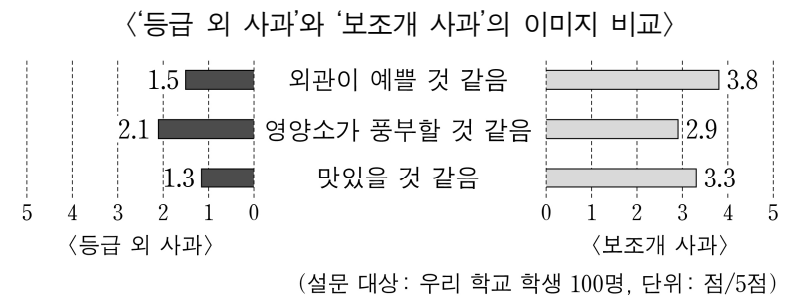
학생회장: 많은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름 짓기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밝혀 주면 좋겠어. 또한 2문단에서 언급한 효과와 관련하여 공모전 참여를 권유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 ① 이름 짓기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함을 유의하도록 한다.
- ② 이름 짓기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름 짓기의 효과를 이해하고 그 방법을 활용해 보자.
- ③ 지나치게 생소한 이름은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체육 대회의 긍정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이름을 지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 ④ 이름 짓기는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올해 새롭게 바뀔 체육 대회에 어울리는 참신한 이름이 지어진다면 체육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⑤ 이름 짓기는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새로운 체육 대회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좋은 이름을 지어 공모전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45. <보기>는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료 1] 학생의 설문 조사 자료



[자료 2] 보고서 자료

〈이름 짓기의 사례〉

이름 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	G4C
목적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 홍보	각종 정부 민원을 24시간 처리하는 누리집 홍보
의미	국내 구석구석에 가 볼 만한 장소가 많음.	시민을 위한 정부 (Government for Citizen)
결과	국내 관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관광객이 증가하는 데 기여함.	이름이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생소해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민원24’로 바꾸자 인지도가 향상됨.

- ① [자료 1]: ‘등급 외 사과’보다 ‘보조개 사과’가 외관과 맛 항목의 점수가 높다는 점을, 이름 짓기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근거로 2문단에 활용해야겠어.
- ② [자료 1]: ‘보조개 사과’와 ‘등급 외 사과’의 영양소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가장 작다는 점을, 이름 짓기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근거로 2문단에 활용해야겠어.
- ③ [자료 2]: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이름이 관광객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잘 지어진 이름이 참여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또 다른 사례로 3문단에 활용해야겠어.
- ④ [자료 2]: ‘G4C’라는 이름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름이 지나치게 생소하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4문단에 활용해야겠어.
- ⑤ [자료 2]: ‘민원24’라는 이름이 누리집의 인지도를 향상했다는 점을,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는 사례로 4문단에 활용해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